월/요/광/장

고영을

좋은 습관은 아름다운 내 인생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등록된 자동차 수가 1800만대이다(2011년 1월 말 기준). 한국의 자동차 수는 지난 1997년 7월 1000만대를 넘어선 후, 2005년 2월 15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연평균 약 58만 대씩 증가해 왔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2014년께는 자동차 수가 20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91대로 '1가구, 1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전을 하는 사람도 그 수를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30개 국가 중 28위로 아주 높다. 이 중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36.4%이며 OECD회원국 중 가장 높고 교통 약자인 14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층의 보행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운전은 20대에서 50대가 주로 하는 현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나 노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보행자의 과실도 있겠지만,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안전한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를 확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쯤 한다면 교통사고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는 우리 생명을 담보로 편리함을 주는 기계이지만, 운전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좌우하기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운전은 길가에 불법 주차했다가 신호 받고 달려오는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운전자, 편도 1차 도로에서 서서히 가다가 뒷 차량이 추월하면 갑자기 속도를 내는 운전자,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만 저속으로 계속 달리는 운전자, 차 뒤통수에 꼭 붙어 앞차를 위협하며 달리는 운전자, 1·2차선만 있는 도로에서 1·2차선 나란히 달리는 운전자, 커브에서 습관적으로 중앙선을 끼고 도는 운전자 등등. 이상 열거한 모든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이다.

또 빗길 운전에 대해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비가와도 속력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 내 지인 중의 한 사람은 빗길 사고로 차는 폐차하고,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직장도 그만뒀다. '길에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그분은 비만 오면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눈길보다 무서운 게 빗길 운전이라고 했다.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빗길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08년 2만70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3만5000 명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는 사망자 수만도 593명이라고 한다.

여유 있게 운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시 지각하더라도 바쁜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 잔소리 듣는 게 낫지 목숨 걸고 운전하는 것은 안 된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무 중 가장 큰 의무이며 효도 '0순위'다. 목숨이 열 개라면 몇 개쯤 죽어 없어져도 상관없겠지만 단 한 개이니까. 한 번의 실수가 지구상에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인 것이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연장해 준다고 한다면 모든 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돈보다 귀중한 것이 생명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한 몸뚱이 하나면 큰 재산보다 값진 것이다. 부모님이 세상에 내보내 주신 이 몸뚱이는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이다.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운전도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이다. 좋은 습관은 꾸준한 연습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그냥 용서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기에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이 편해져서 좋다.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무조건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무조건 이해하고, 매사에 이유를 달지 말며, 살아 있음에 무조건 감사하자. 그렇게 산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좋은 습관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구려 대학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남 동부권 장마피해, 복구에 만전 기해야

전남 동부지역에 사흘간 300㎜~40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3명이 사망하고, 주택 40여채와 농경지 6천800여ha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11일까지 20~70㎜ 비가 예상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9시 30분께 보성군 회천면 화죽리 한 암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암자에 있던 문모(91)씨와 마모(86) 할머니 등 2명이 사망하고, 전날 오후 여수시 상암동 작산 마을 앞 농수로에서 실종됐던 이 마을 장모(71)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농경지 6천893ha가 침수됐으며, 주택 40채가 물에 잠기고 4채는 완전히 파손됐다. 순천임대산단과 광양지역 등 4곳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 응급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 폭우는 9일 하루에만 광양 357.5㎜, 고흥 305.5㎜ 등 300㎜ 이상이 내렸으니 피해는 불가항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있어 항시 그렇듯 이번에도 인재(人災)나 관재(官災)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보성에서 산사태로 발생한 인명피해도 사전에 위험지구로 지정해 응급조치를 했다면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기상청의 빗나간 예보도 피해를 키웠다. 지난 6일 전남 동부권에 7~9일 하루 평균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8일에는 9일 하루 120㎜ 이상의 호우가 예상된다고 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분명 관재나 다름 없는 것이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 관계 기관 등은 피해 상황 조사와 함께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을 서둘러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산강 살리기 공사장과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당부한다.

이래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나

'뇌물에 도박까지, 공무원 폭행에 회의 중 자리 뜨기…'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지방의회의 일그러진 자화상(自畵像)이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 왜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 되는지 알만 하다. 비리 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시 전·현직 지방의원 15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여수시의원 7명과 도의원 4명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시 의회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상임위 업무와 결산보고에서 일부 의원들이 온종일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는 등 구태를 재현했다. 또한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지방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회의마저 들 정도다.

뿐만 아니라 광주 북구의회 의원 2명은 회기 중인 지난 5일 한 의원 사무실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전남 32명, 광주 7명 등 무려 39명의 지방의원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누락,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지방의회가 이런 몰골로 방치돼선 안된다. 지역 발전과 주민 민생보다 온갖 불법과 비리에 연루돼 제 잇속이나 챙기는 일에 관심이 많은 지방의원이나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도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기대했다. 하지만 성년이 다된 지금까지 긍정적 변화보다는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일탈을 바로잡는데 주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같은 합법적 견제 수단을 활용해 탈선과 불법으로 얼룩진 지방자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법조칼럼

낡은 법복이 무거운 이유

조영호

가끔 택시를 탄다.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릴 때마다 뒤에서 숨을 죽이고 앉아 있다. 시간이 돈인지라 그러겠거니 하고 짐작했다. 한번은 심각하게 물어봤다. 신호를 지키면서 좀 천천히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안전하게 가주시라고 말했다. 안전이 최우선인 나에게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영 불편했다.

그런데 답변이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신호를 지키고 정상속도로 운전하면 승객들이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느리게 가려면 왜 택시를 타냐고. 심지어 승객이 먼저 택시기사에게 신호도 위반하고 과속해서 빨리 가달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면서 직업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택시기사가 그날따라 처연하게 느껴졌다. 신호 지키면서 천천히 가달라고 말해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불법을 권유하는 사회, 이것이 부정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이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이 갖는 직업적 특권이 있다. 법관은 법을 지키고 정직해야 한다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법관이기 때문이다. 인격이 그리 고매하지 않고 생활도 그다지 고결하지 못한 법관이라고 해도, 분쟁 당사자들에게는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권유할 수 있다. 법정에서는 양보와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는 "조금 손해 보고 살면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왜 손해 보는 것이 행복일까? 그런데 지금은 양보하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법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자주 인용한다. 조금 손해 보고, 대신 행복을 사라고……. 그러면 뜻밖에도 이 말을 쉽게 수긍하는 당사자들이 많다. 그래서 치열했던 분쟁이 예상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

저잣거리에서 범부가 이야기한다면 세상물정 모르는 숙맥이라고 치부되기 쉬운 말도 법복을 입은 법관의 입에서 나오면 고결한 권면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우리 모두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원한다. 법이 지배하고 평화로운 사회,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복리가 균형 잡힌 그런 사회를 원한다. 이러한 바람만큼이나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는 법관은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주기를 사람들은 바라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법관은 삶의 셈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직하리만큼 정직하고 법에 대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제 법관은 자신이 말한 그 말에 구속되어 바르고 올곧은 삶을 향하여 고뇌하게 된다. 정직하라는 양심의 소리에 예민하게 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없는 바른 말을 근엄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래되어 낡은 법복이 차츰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볍게 걸칠 수 있었던 그 옷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이 무게는 국민의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리라.

다음주에 선배 법관 한 분이 정년을 맞으신다. 바른 생각과 올곧은 삶을 위하여 바쳐 온 세월의 향기가 느껴진다. 머리는 하얗게 세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낡은 법복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고뇌도 깊었으리라. 환한 미소 너머로 느껴지는 쓸쓸함도 낯설지는 않다. 오랜 세월, 법복의 무게를 감당한 그분이 존경스럽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우리의 '평창'은 '2012 여수엑스포'다

조억헌

한국시각 7일 0시 18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자크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입으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예스 평창"이라는 위원장의 짧은 한마디와 함께 '평창 2018'이라는 카드가 공개되면서 발표장은 순간 환호성과 함성으로 가득 찼다.

63 대 25. 압도적인 표차로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대한민국과 개최도시 평창은 기쁨의 눈물과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탄성이 한밤을 갈라놓았다. 두 차례의 실패를 맛본 뒤에 이룬 쾌거라 이번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소식은 더 값진 것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그랜드 슬램' 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산업연구원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보고서'에 의하면, 대회 개최로 인한 전국 총생산액 유발효과는 20조4973억, 부가가치 유발액만 해도 8조75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3만 여명의 고용효과는 물론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평창이 있다. 내년에 미항 여수에서 개최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바로 그것. 여수엑스포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 도로 항만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 약 14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7만 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남해안이 아시아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역사적인 국제행사이자 해양 축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내년 5월 12일부터 석 달 동안 열리는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와 개최지 여수시를 비롯한 지역민 모두가 막바지 준비로 분주하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인 광주은행도 내년 여수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일찍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09년 10월,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이후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각종 홍보활동과 대국민 붐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와 F1 코리아 그랑프리 붐업 조성을 위한 광주은행 서울지역 우수기업 CEO초청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열 달 앞으로 다가온 여수박람회를 서울과 수도권에 적극 홍보하면서 국가적인 붐을 조성하자는 취지였다.

2007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된 2012 여수박람회 여수 개최 공식결정 이후, 200만 전라남도민과 여수 시민 모두는 한마음 한 뜻으로 세계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박람회장과 도로, 항만 등 기초시설도 계획대로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제 세계적인 박람회와 F1 대회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성공개최'를 향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 모쪼록 '2018 평창'의 함성과 환호가 '2012 여수'대회의 성공 신호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광주은행 부행장〉

넘쳐나는 건강보조식품 과잉 홍보 경계해야

건강보조식품이 넘쳐난다. 잡지나 주간지, 일간지 신문에까지 건강보조식품의 광고가 넘쳐나고 심지어 과잉 홍보 기사까지 등장한다.

건강보조식품이 자칫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노인들은 무릎이나 관절염에 좋다며 건강식품을 주로 찾는다. 젊은 여성은 피부와 다이어트를 위해서 찾고 어린이들은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다. 중년층 또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건강식품을 즐겨 찾는다.

대표적인 건강보조식품에는 키토산, 게르마늄, 음이온, 은나노 등 정확한 효능 입증이 힘든 성분들이 함유되고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암예방, 성인병 치료 등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광고는 "밥보다 많이 먹어도 좋다" "1주일만 복용해도 효과를 본다" 등 과장 광고가 대부분이다. 혹시 몸에 이상이 생겨 문의를 하면 판매 회사에서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체질이 변하기 위해 반응하는 것이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정말 몸이 좋아지는 걸로 착각하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건강보조식품이 인체에 가장 많이 해를 끼치는 부분은 위와 간이라고 한다. 간에는 독성을 주어 간을 망가트리고, 위에는 자극을 주어 위벽을 허물게 한 뒤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가 될 수는 없다. 부지런한 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최선이라고 한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남용을 삼가 하자.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아파트 도시

우리나라 전통가옥은 지붕을 덮는 재료에 따라 샛집이나 너와집, 초가집, 기와집으로, 평면의 형태로는 일(一)자, 기역(ㄱ)자, 디귿(ㄷ)자, 미음(ㅁ)자, 전(田)자집 등으로 발달했다. 무엇보다 집의 구조부터 재료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조화 및 열린 공간을 지향한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됐고 이는 극심한 주택난을 불러왔다. 1960년대 이후 유럽의 서민형 주택단지인 아파트가 집중 건설되기 시작한 배경이다. 무엇보다 건축대지와 공사비를 절약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었다.

'성냥갑' 구조로 인해 세대의 개체성이 무시되고 이웃간 접촉이 단절되는 비인간적인 환경이라는 지적 속에도 정부와 건설 재벌, 중산층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공급은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세대당 면적이 커지고, 단지 또한 고층화·거대화하면서 분양가는 날로 상승하지만 도시민의 내집 마련 꿈은 언제부턴가 '아파트'가 1순위다.

특히 광주는 첫 아파트가 들어선지 반세기가 채 안됐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도시'다. 통계청의 '2010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63.5%로 2위 울산(54.9%)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주택 중 아파트 비중도 76.5%에 달해 대전(70.3%)을 제치고 최고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광주의 관문은 물론이고 생태계 핵심 가운데 하나인 광주천 주변까지 '초고층 아파트 숲'이 점령할 태세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은 그것을 지은 사람과 소유한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한 집단의 문화수준을 논의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편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도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주거문화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